

## 日世宗학당 수강생 교류회,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 세종학당이 지난 1월 27일,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1년 동안 배운 한국어와 문화강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성과를 선보이는 ‘세종학당 수강생 교류회’를 개최했다.

대표적인 해외 한국어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은 일본에 16개소가 있으며 그 중 주일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세종학당에는 한국어와 문화체험강좌 총 47개반이 개설되어 있고 수강생은 연간 1,000명이 넘는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학사일정과 코로나 19로 연기되어 오다가 대면수업재개(2023년)을 계기로 6년 만에 열린 이번 교류회는 수강생과 가족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어강좌는 반별로 준비한 연극, 낭독, 뮤지컬, 합창과 노래, 프레젠테이션을 무대에서 뽐냈으며 문화강좌는 한지공예전시를 시작으로 가야금, 무용, 민요·판소리, 장구 공연이 이어졌다.

교류회 마지막에는 한국의 트로트 그룹 ‘삼총사’가 특별 게스트로 등장해 유쾌한 퍼포먼스와 트로트 메들리로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 주었다.

공형식 문화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정과 회사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수강생들이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 이야말로 한일우호를 지탱하는 대들보이자 주춧돌이다” 라며 수강생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